우수종돈 확보 열기 모처럼 "후끈"

- 홍 보 부 -

IMF 한파 영향으로 지난해 6월부터 썰렁하기만 했던 종돈 구매 열기가 7개월만에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0일 제1검정소(경기 이천)와 2월5일 제2검정소(경남 하동)에서 열린 검정돈 경매행사장에는 모처럼만에 우수종돈을 확보하려는 양돈농가들로 북적거렸다.

이날 제1검정소에는 48명의 경매 입찰자와 120여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109두의 검정 합격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경매결과는 109두중 2두를 제외한 107두가 새 주인을 찾았고, 낙찰가는 암놈(24두) 680,208원, 숫놈(83두) 890,602원, 평균(107두) 843,411원을 기록했다. 평균가격은 전월에 비해 무려 27.9%(184,094원)나 껑충 뛰어 올랐다. 최고 낙찰가는 성현농장이 출품한 듀록 챔피온으로 이진석씨(충북 충주)에게 250만원에 팔려나갔다.

제2검정소 역시 모처럼만에 경매장이 양돈인들로 꽉 들어차 열기를 뿜었다. 이날 2검정소에도 48명의 경매 입찰자와 110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경매에는 106두의 검정 합격돈이 상장돼 한 마리의 유찰도 없이 모두 낙찰되었다. 지난 해 6월 이후 경매유찰율이 20~30%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종돈 구매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낙찰가는 암놈 646,666원, 숫놈 848,191원, 평균 825,377원을 기록했다. 2검정소 역시 낙찰가가 전월에 비해 15.6%(111,443원) 올랐다. 최고 낙찰가는 진흥축산이 출품한 대요크셔 챔피온으로 정종기씨(경남 진주)가 200만원에 구입했다.

이처럼 모처럼만에 검정돈 경매가 성황을 이룬 것은, 지난해 IMF 영향으로 돼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자금난 등으로 양돈여건이 악화되자 양돈농가들이 모돈을 대량 처분하고 종돈을 외부에서 입식하지 못하다가 최근 돼지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우수종돈 확보 차원에서 대거 경매에 참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돼지가격이 일정기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농가들이 지난해 후보돈 교체나 종돈 확보를 미루었기 때문에 검정돈 경매 열기는 당분간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돈

〈표〉 검정돈 성적 및 경매 낙찰가 현황 (1검정소 : 1월20일, 2검정소 : 2월5일 경매분)

구분	품종	성별	제1검정소 합격두수	일당증체량(g)	사료요구율	등지방(cm)	선발지수	경매낙찰가(원)	제2검정소 합격두수	일당증체량(g)	사료요구율	등지방(cm)	선발지수	경매낙찰가(원)
평균	D	♂	40	1,079	2.32	1.47	233	996,053	66	957	2.13	1.60	223	831,774
		♀	3	1,055	2.46	1.57	222	766,667	2	843	2.35	1.61	204	530,000
		계	43	1,077	2.33	1.48	232	979,268	68	953	2.13	1.60	223	822,343
	L	♂	16	1,095	2.36	1.34	237	750,000	6	1,007	2.10	1.29	239	806,666
		♀	7	1,010	2.52	1.41	221	731,429	2	753	2.52	1.42	195	650,000
		계	23	1,069	2.41	1.36	232	741,875	8	944	2.20	1.32	228	767,500
	Y	♂	46	1,052	2.32	1.37	233	814,444	29	969	2.12	1.27	235	893,920
		♀	15	1,031	2.38	1.45	227	636,071	8	879	2.30	1.32	218	675,000
		계	61	1,047	2.34	1.39	232	764,500	37	950	2.16	1.28	231	844,705
합계		♂	102	1,069	2.33	1.40	234	890,602	101	963	2.12	1.43	228	848,191
		♀	25	1,028	2.43	1.45	225	680,208	12	852	2.34	1.38	212	646,666
		계	127	1,061	2.35	1.41	232	843,411	113	951	2.15	1.48	226	825,377